

제8차 세계화상대회 축사

존경하는 황명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
원국동 대회 조직위원장,
각국의 중화총상회 회장과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화상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이 이룩한 성공신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화상 상권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화인 경제인 여러분은 세계 경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여덟번째 맞는 이 대회도 이제 세계적인 비즈니스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중화총상회와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무역과 투자,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

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양국 간 교역은 무려 12배나 늘었고,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미국·일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새삼스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양국은 수천 년에 이르는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국민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 왔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최근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 간의 이러한 협력을 해외 화상으로까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인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역동적입니다. 주식으로 따지자면 '성장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IT·BT와 같은 첨단 분야의 발전도 괄목할 만합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력과 정보화, 그리고 물류 인프라 또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부산·광양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도 여러분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달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남북한 화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TCR, TSR과 연결되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오래 전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존중하는 여러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여러분의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한국과 화상 여러분이 더욱 가까워지고 국제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